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음 6월 30일) 제187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성공... 전북 유치단, 도전·열정 성과물 안고 '금의환향'

“도민 삶 도움되도록 잘 준비해 나갈 것”

송하진 지사 “큰 응원 보내준 도민들께 감사 절실함이 유치 성공으로 이어진 것 같아” 소감 밝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성공한 전북도 유치단이 도전과 열정의 성과물을 안고 금의환향 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유치단은 아제르바이잔 바쿠 콘그레스 센터(Baku Congress Center/BCC)에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연맹(World Organization of the Scout Movement, WOSM) 총회에서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 개최권을 따내고 지난 18일 귀국했다. <관련기사 3면> 전북도 유치단은 지방공함과 철도 등이 발달한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운 폴란드 그단스크(GDANSK)시와 경쟁에서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표본이와 표단속에 총력을 쏟은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회 개최권을 따냈다. 대한민국 607표 대 폴란드 365표를 얻었다. 1개 회원국당 6장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는 유효투표 972표(162개국) 중 101개국의 표를 얻은 셈이다.

이는 전북도가 지난 2015년 9월 국내 후보지 선정 이후 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한 회원국별 지지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케스팅 보트를 쥔 아프리카 40개국과 중남미 34개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륙별 원정대 파견을 통해 표심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의 세밀한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분석이다. 송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공항 환영행사를 거쳐 도청 현관에서 간소한 환영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기쁘고 감격스럽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집도 잊은 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뛰어 준 직원들, 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관계자들과 큰 응원을 보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 출범 이후 잼버리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힘을 실어주신 문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8일 아제르바이잔에서 돌아와 꽃목걸이를 받고 있다.

재인 대통령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낙연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태권도대회나 세계잼버리 모두 시설활용, SOC 구축 등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다 나온 복안이었다”며 “절실함이 유치 성공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유치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 프로그램과 연계사업 발굴, 새만금 기반시설 마련 등을 잘 준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했다. 전북도는 21일에 실국별로 잼버리 후속 과제 등을 점검한 뒤 종합안을 갖고 24일 언론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산 계란, 살충제로부터 ‘안전’

도내 산란계 125 농가 대상 전수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

전북도는 경기도 소재 산란계 농장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실시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와 관련, 125 대상농가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18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무항생제 인증된 50농가 검사를 완료

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됐다. 단 3농가는 비펜트린이 기준 이내로 검출됐다. 일반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동물위생시험소는 66농가 검사를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사됐다. 따라서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125농가에 대해 시중에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도는 도내 생산 계란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지만,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산란계 사육농가에 대한 살충제 사용여부와 동물약품 안전사용여부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배움의 길에서 소외된 학생 없기를”

서신동 익명의 기부천사 주민센터에 2798만원 전달

“가정환경이 어려워 배움의 길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세요!”

최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로 익명의 독지가가 ‘훈훈한 사랑’을 전달해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익명의 80대 할머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더 이상 생활고로 인해 배움의 길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종이가방에 들어있는 5만원권 430매와 1만원권 648매 총 2,798만원의 현금을 내 놓았다.

이 할머니는 “현재는 자식들이 성장해서 직장을 잡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본인의 배움의 한과 자녀들을 어렵게 공부시키면서 자신보다 어려운 주위 학생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매우 아팠다”면서 “20여년간 식당일, 날뽕팔이, 발일 등을 하면서 모아 온 돈을 형편이 어려워 배움을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사라졌다.

서신동 유경수 동장은 “할머니의 고귀한 뜻에 따라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신동주민센터에서는 기탁받은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계좌에 입금했으며, 지역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을 엄선해 학원비 및 장학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인재용 기자

매일 INDEX
3면 - 'DU의 안보·평화 의지 계승'
6면 - 산재 발생시 원형 책임 강화

청정해풍고추, 그 참맛과 참빛 체험!!!

제 21회 그창 해풍고추 축제

2017년 8월 26일 | 토 | ~ 8월 27일 | 일 | 2일간 / 전북 고창군 해리면 복지회관 일원

주최·주관 : 고창해풍고추축제위원회
후원 : 고창군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해리농협 고창군지역농협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